

# 영광군, MIT와 전기차 기술력 공유기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시간대 등과 e-모빌리티 산업 노하우 공유 노력 합의

쌍용차 모기업 마힌드라 GenZe사 CEO 영광 방문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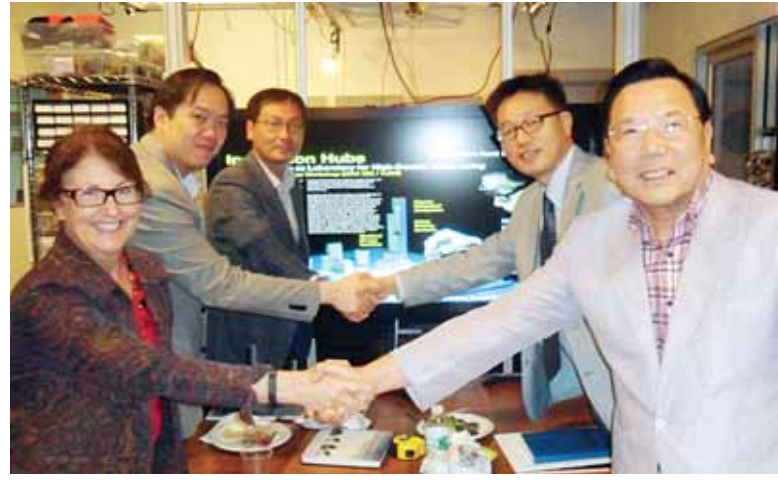
영광군의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구상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외국 유명대학의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외국업체의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관련 업체의 부진, 정부의 미흡한 지원 속에 군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정기호 영광군수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 세계적인 미디어 융합 기술 연구소로 알려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시간대학 등과 전기차 및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 산업에 대해 상호 기술력과 노

우를 공유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MIT를 찾은 정 군수 일행은 그동안 군의 전기차동차 산업 투자 사례와 신규 프로젝트들을 설명했으며, 크리스티 윌리엄스 MIT Media Lab 부부장은 군의 e-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알려진 미시간대 공과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미국 전기차동차 산업과 향후 전기차 및 e-모빌리티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회계가 된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기호 영광군수 등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을 찾아 전기차동차 및 e-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상호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약속 했다. <영광군 제공>

미국 내 e-모빌리티 법인으로 알려진 이 자리에서 GenZe사 CEO 산제이 마힌드라 GenZe사와 미팅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GenZe사 CEO 산제이 마힌드라 GenZe사와 미팅도 가졌다. <영광군 제공>

▶e-모빌리티=네트워크에 모바일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최신 정보에 접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달 초 영광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 군수는 "미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전기차와 e-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전기차와 e-모빌리티 클러스터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 영광군 일대에 전기차동차 200대를 관광사와 주유관공차 등에 보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의 투자 약속이 현실화되지 못해 정부 지원도 빈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땅끝마을서 삼치삼합 드세요” 2일 한 어부가 해남 땅끝마을에 가을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 ‘삼치’를 잡아 들어오려고 있다. 삼치는 잡자마자 바로 죽는 급한 성질 탓에 구이나 조림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싱한 삼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해남에서는 ‘삼치회’를 목은지나 햇김, 쌀밥과 함께 먹는 삼치삼합이 인기다. 가격은 kg당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까지다. <해남군 제공>

## 완도 전북산업특구 3년 연속 ‘우수 특구’ 선정

추석 완도군 특산물

45억4000만원 판매

완도 전북산업특구가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전국 151개 지역 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특구로 뽑혔다.

지난 2009년 전북산업특구로 지정된 완도는 전국 전북 생산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특구 지정 이후 전북생산 및 품질혁신을 위한 전북연구센

터 건립, 수산벤처대학운영으로 핵심인력 육성, 기능성 전복 제품 개발 등 제품 다양화로 전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운영 등 전북 유통마케팅 강화사업으로 일본, 중국 등 수출 물량이 253t(1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한편 전복을 포함해 완도군 특산품이 올해 추석명절 기간 대도시 직거래 장터, 대형유통센터,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45억4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

타났다. 직거래장터 운영, 대형유통센터 특관 행사 등 전략적이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전북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량이 15% 이상 상승했다.

특히 전략적으로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서 38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특구 지정을 통해 최고 품질의 전복을 생산해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신안 장산도 뱃길 열렸다

해남·신안 섬 연결 ... 목포항까지 1시간 단축

신안 장산도 등 전남 남부해안에 뱃길이 열렸다.

뱃길이 1시간 이상 단축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 개선으로 이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열악한 남부권 섬 주민의 해상교통 불편을 없애기 위해 5년간 추진해온 해남 화물항 부두시설 공사가 최근 끝났다.

진입도로 170m(너비 6.0m), 접안 시설 27m(너비 20m) 규모로 5억 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로써 해남과 신안 섬을 잇는 새 뱃길이 열렸다. 목포항까지 1시간30

분 동안 배를 타고 육지 나들이를 했던 장산도 주민들은 화물항을 이용하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2시간이 걸리던 인근 신의도 주민들도 40분이면 충분하다. 천일염 등 농산물을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화물항 진입도로 확장 포장 공사가 끝나는 연말까지 이 항로에 여객선이 본격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오는 11월 장산도에서 열릴 왕새우 축제 때 화물항을 이용, 관광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신안=이상성기자 sslee@

## 전북

# ‘S-트레인’ 타고 3000명이 순창 다녀간다

〈남도해양관광열차〉

강천산·민속마을 등

郡, 맞춤형 코스 제공

순창군이 연일 쏟아지는 관광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시범 운행하고 있는 남도해양관광열차(S-트레인)가 지난달부터 3000명의 관광객들을 순창에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2일 “지난달부터 시범운영한 S-트레인을 통해 지난달 24일과 이달 1일에도 230여명의 관광객이 순천역에서 강천산과 민속마을, 재래시장코스 순창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영·호남을 잇는 S-트레인은 앞으로 증편 운행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부산·경남지역에서 순창을 찾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6일에는 900여명의 관광객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민속마을과 강천산을 방문하고, 7일에는 서울에서 수학여행단 600명이 장류체험관에서 고추장 체험과 강천산 트레킹 코스를 걷는다. 이어 9일에는 400명, 19일에도 6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2일에는 충남 아산 성심학교 장애인과 돌보미 210명이 순창 강천산을 찾아 트레킹에 나섰다. 산세가 가파

르지 않고 잘 정비된 산책로와 맑은 계곡물, 시원한 폭포수 덕분에 장애인 모두 강천산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돌보미 손잡고 발걸음으로 전철로는 흙의 기운을 느껴며 왕복 5km 웰빙 맨발산책로를 일반 관광객들처럼 걷기도 하고, 산책로와 나란히 이어진 폭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이온 샤워도 경험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국립 군산대학교 ‘새만금 캠퍼스’ 설립 인가

국립 군산대학교가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승인을 받았다.

군산대는 2일 “교육부로부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인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군산대는 2010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무상관리 전환받은 4만㎡의 터에 캠퍼스를 조성했다. 연면적 9766㎡에 지상 5층 건물인 산업

단지 캠퍼스에는 기업연구관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관 등이 들어섰다. 군산대는 14일 오전 11시 새만금캠퍼스관에서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캠퍼스 개교식’을 열고 새만금시대를 공식 선언한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여성취업 논스톱 서비스 지원

고창군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다양한 정책으로 여성취업 논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출산·양육 등으로 취업 현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15일부터 10월1일까

지 12주 간 ‘한국어교원양성’과 ‘커리어스타 자격증’과정을 운영해 40명의 수강생 중 35명이 수료했다.

또 여성회관에서 자격증 및 창업 관련 15개 과정을 운영, 300여명의 교육생이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순창군, 영농철 맞아 2개월간 토요 근무제 운영

순창군은 2일 “본격적인 가을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장비 임대로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토요 근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일에만 가능했던 농기계 임대를 이달부터는 담당공무원들이

토요일에도 근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손쉽게 빌려 쓰도록 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작업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회 3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화예약은 063-650-5141.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남원시 장애인 콜택시 2대 정식 운행 돌입

남원시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입한 장애인 콜택시 2대가 지난 1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1·2급과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동의 편의 도모를 위한 휠체어리프트 및 전동시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이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콜번호(063-626-1911)를 누른 뒤 목적지 신청을 하면 콜택시 차량이 신속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해준다.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운행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요금은 택시요금의 50%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 놀제종년기원제

400여명이 참여했다.

2일 제6회 놀제종년기원제가 고부면 관청리 놀제정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고영섭 시의원, 고부면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등 주요 내빈과 주민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KT&G 내장산연수원 신축 11월 첫 삽

정읍시에서 최대 현안사업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KT&G 내장산연수원 건축 공사가 내달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읍시와 (주)KT&G는 2일 “지난달 26일자로 내장산 연수원 건축허가

를 승인받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5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T&G 내장산연수원은 총면적 8419㎡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교육연구시설과 함께 72실의 숙박시설도 들어선다.

시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6년 조성계획 승인 이후 지지부진한 형편이었다.

(주)KT&G가 투자에 나서면서 관련 기관 및 기업체들의 투자도 잇따를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부안 계화야구장 완공 ‘눈앞’

부안군은 2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계화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환으로 조성한 야구장이 11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계화에 들어서는 야구장은 지난해 3억5000만원을 들여 착공했으며, 군은 야구장 건설과 다목적 회관 신축, 어촌회관 리모델링, 생태휴양공원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계화도권역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1박2일간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우석대 박노준 교수를 초청해 강연과 리더워크숍을 열고 야구장을 비롯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계화도권역’을 포함해 부안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모두 4곳으로 ‘우동권역’은 53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9년에 가장 먼저 사업이 완료됐으며, ‘내소사권역’은 오는 2016년까지 48억5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에 착수한 ‘청호권역’은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자립형 마을로 개발된다.

/부안=정재용기자 jiv0681@